

“길바닥에 쫓겨날 줄 알았는데 3층 건물 사서 이사 가요”

아주경제 2014.10.8

인터뷰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 관장

희귀 도서 등 2만여 권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
‘자료 수집광’ ‘걸어다니는 미술 사전’으로 유명
셋방살이의 설움 털고 ‘40년 열정’ 다시 시작

부슬부슬 비까지 내렸다. 지난달 29일 서울 장전동 한국미술정보센터 앞에는 이삿짐 트럭이 박스를 쉬지 않고 싣고 있었다. 5층 건물 옥상에서 트럭으로 비닐을 길게 내려치고 3층 창문에서 나오는 짐을 보호했다. 사다리에 실려 내려온 건 모두 480박스. 한국미술정보센터에서 무료 열람 서비스하던 미술 관련 도서 2만여권이였다.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정형민) 서울관으로 떠나는 자료들이다. 지난 7월 30일 한국미술정보센터 김달진 소장(60)이 국립현대미술관과 기증식을 체결한 후 이어진 약속 날이었다. 비 오는 날에도 강행군을 펼친 이날, 지켜보던 직원들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잘 가, 사랑하는 책들아~”. SNS로 이 장면을 사진으로 올렸고 이를 본 사람들도 안타까운 심정이 일었다. “마음이 아프다. 함께할 수 없고 도움이 못되어서. 너무 미안해~”라는 댓글이 달렸다.

박스에 실려 보내는 그 자리엔 그 책들의 주인, 김달진 소장도 있었다. 40년간 끌어모았던 책들. 오른쪽 어깨가 처질 정도로 가방을 메고 모으고 모았던 책들이었다. 착잡한 모습의 주위 사람들과 달리 그는 흥가분한 듯했다. 김달진 소장은 “더 넓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됐으면 한다”며 허허 웃었다.

◆‘길바닥에 쫓겨날까 잠 못 이루는 날’ 이젠 끝

넉 달 전, 김달진 소장은 다급했다. “저희 공간 문제가 3개월 남았네요. 정말 길바닥에 쫓겨나게 되는지,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네요... 저희 문제는 김달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조선일보 인터뷰 전문 최○○ 선임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김 소장의 메일을 받은 최 기자가 그를 만났고 6월 23일자로 그의 이야기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금요일의 사나이’ 별명을 가졌던... 김달진 한국미술정보센터 소장 “3개월 남았네요. 길바닥에 쫓겨날지...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네요”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가 상세히 실렸다.

“속은 타들어 가고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줬다는 마음에 조선일보에 연락한 것이예요. 결국 이렇게 됐지만요.” 기사가 나온 후 관계자들의 ‘설레발’은 있었지만 ‘평생을 바쳐 몰두한 한 개인의 헌신에 대해 정부의 응답’은 없었다.

‘김달진이 길바닥에 나왔을 판’이라는 소리는 이미 미술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도움을 주고 싶지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미술계 인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하지만 도움을 청했던 조선일보 기사는 극단의 반응을 보였다. “전세보증금이 9억7000만원인데 이 중 8억27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이었다. 미술계에 일던 측은지심을 넘어서게 했다. “그렇게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는 놀라움과 ‘감당 못할 책, 기증하면 될 일이지 욕심을 부린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김 소장도 알고 있었다. “차라리 그만 손 떠라는 말도 들었고, 아집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힘이 된다면 잡아야 한다는 마음밖에 없었다. 대통령 빼고 청와대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은 물론, 문화예술 관련 ‘높은 분들’은 다 만났다. 그렇게 1년간 다리품을 팔았고 전전긍긍했다.

책들이 쌓여 좁아 터졌던 통의동 건물에서 홍익대 근처에 3개 층을 쓰는 건물로 이사 오자 ‘김달진이 건물 샀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사 왔을 때인 2010년, 김달진 소장은 훗날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저 넓은 공간에 책들이 몸을 펴고 자리를 잡은 것만 봐도 행복하기만 했다. ‘무료 열람 서비스’를 하며 문을 연 한국미술정보센터는 4년간 제대로 된 건물에서 화려한 생활을 했다.

전세보증금 8억2700만원 지원은 정말 센 지원금이다. 예술가들을 위한 사업기금운용 측면에서 특혜라면 엄청난 특혜다. 은밀하고 위대해진 한국미술정보센터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관장은 40여년 만에 셋방 설움을 털고 오래된 건물이지만 3층짜리 건물을 매입해 “내 건물에 내 자료를 넣고 전시하게 된다”며 한결 가벼워진 표정을 보였다. [박현주기자]

는 유인촌 장관 때 시작됐다. 문체부의 예술전용공간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당시 공적자금이 들어가니까 이 건물이 전세인데도 감정평가를 했다. 건물주는 화가 최영욱씨다. 전세보증금이 9억7000만원이라는 감정이 나왔고 정부에서 8억2700만원을 지원했다. 그는 “전세금만 지원을 해준 거다. 나머지 1억4300만원은 자부담해서 들어왔다. 또 인테리어 비용만 7000만원이 드는 등 건질 수 없는 큰 돈이 그대로 날아간 셈”이라며 “연구소 사무실은 월세 220만원을 썼고, 한국미술정보센터 운영도 공과금·인건비 등은 자비로 운영했다”고 말했다.

◆“4년간 혜택 감사...3층짜리 오래된 건물 구입 수리 중”

“다 끝난 상황인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서운했고 답답했

고 미치기 일보직전이었다.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건 쫓아다니며 매달릴 때마다 들 어준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그의 희망이었다. 박 시장이 서울시 직원에게 300평짜리 건물 지을 곳을 알아보 라고 했고, 또 노원구 공릉동에 짓는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게 하라는 말에 들뜨기 까지 했다. 하지만 1년이 되도록 그 말은 허공에서 맴돌았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보증금 반환일을 당해낼 수 없었다. 기대 감이 실망으로 돌아선 순간, 그는 “지원도 받아봤지만 영구적일 수 없다”는 걸 깨달 았다. “이런 자료들이 김달진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이기적이었다.

“욕심을 버려라”는 말이 마음을 울렸 다. “그래, 많은 사람이 보게 하자.” 더 이상 정부 지원금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 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책들을 기증

하게 됐다. 9월 말 정부의 지원이 끊긴 한 국미술정보센터는 문을 닫았다.

김 소장은 “지나고 보니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고 했다. 낙담은 또 다른 탈출구를 찾는다. 셋방살이 설움을 끝내고 3층짜리 오래된 건물을 매입했다. 한국미술정보센터는 문을 닫지만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은 살아있다. 김달진 미술연구소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현재보다 규모를 축소해 오는 11월 서울 종로구 홍지동으로 이전, 기존처럼 운영한다. 현재 책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철근공사를 튼튼히 하고 있다. “그동안 버린 인테리어 비용 등만 모았어도 작은 공간을 샀을 거예요. 하하.”

◆‘초록색 바지 입은 사나이’로 변신 “내가 이기적이었다”

변한 건 그때부터였다. 엽매인 과거를 조금씩 놓으면서다. 회색 양복바지에 흰 와이셔츠, 검은 가방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다. 초록색 바지에 꽃무늬가 그려진 셔츠를 입었다. 사람들은 “이게 웬일이냐”며 놀라워했다.

“초록색 바지를 사들고 들어가니 아내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책을 기증한 후 헛헛했다. 평생 안 가보던 백화점에 갔다. 양복바지 하나 사려고 갔는데 15만원이 나 했다. 가판에서 파는 바지에 눈이 갔다. 양복바지보다 훨씬 값이 저렴했다. 그렇게 집어든 바지가 초록색이었다.

“주위에서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느껴졌지만 기분이 가벼워졌고, 취미도 없이 그동안 왜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은 웃고만 다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고.” 돌아보니 내가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릴 적 자료 모으는 게 천직이라고 여겼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일당 4500원 ‘일용 잡급’으로 채용됐어도 행복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별정직 7급, 3년 계약직으로 일했다. 이후 김달진은 ‘금요일의 사나이’로 유명해졌지만 직장은 고민이었다. 계약직 이후 나가든지 기능직 10등급을 다시 하든지 선택해야만 했다. 10등급은 당시 타자수·방호원이었다. 응어리가 커졌다. 미술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내가 잘 못한 것도 아닌데 원망이 커졌다. 더욱이 아들의 약값이 문제였다. 왜소증으로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아야만 하는 상황이 었다. 아버지였다. 1996년 국립현대미술관을 떠나 민간 화랑인 가나아트 자료

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랬는데, 아들 때문이었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또래 아이들보다 2~3살이나 어려보이는 아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해병대에 입대한다고 했을 때도 무감했다. “내가 얼마나 무심한지 그런 아들한테 면회 한 번 안 갔어요. 자료일이 아니면 정말 신경을 안 썼어요.”

잔한 마음이 서로 교류하고 있을 때, 그가 다시 화색이 돌았다. “이 티켓 보세요. 이 티켓 하나에 읽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전시 티켓이 다닥다닥 붙은 파일을 넘기며 그가 또 말을 이었다. “티켓에는 그 전시의 대표작이 나오잖아요. 그림을 알 수 있죠. 또 타이포와 입장료의 변화까지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 부여가 중요해요. 자화자찬 같지만 내가 우리나라 미술계에 엄청난 일을 해주는 거예요. 피카소 전시가 29번이 열리고 연표가 만들어진 건 다 이 자료 덕분이예요. 흐흐흐.” 박현주 기자 hyun@

▶김달진 관장= 관장이라는 직함보다 ‘걸어다니는 미술사전’으로 유명한 그는 작가·평론가들 프로필은 물론 미술의 미자, 옆구리만 찔러도 정보가 쏟아지는 ‘미술자료 박사’다. 중학생 때부터 상표·담뱃갑·기념우표 등을 수집했다. 이후 여성잡지 등에 실린 세계명화 화보를 때내 미술스크랩을 시작했다. 미술평론가인 이경성씨(1919~2009)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됐다는 뉴스를 보고 편지를 썼다. 자료스크랩북을 싸들고 가 큰절을 하며 청소부라도 좋으니 미술관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사정했고 1981년 고졸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이 됐다. 화가들의 인명카드 정리와 자료집 관리를 맡아 일하며 전시 팸플릿과 도록을 수집, ‘걸어다니는 미술사전’으로 유명해졌다. 2000년대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설립했고 온라인 ‘달진 닷집’으로 진화했다. 또 발품 팔아 만든 월간 ‘서울아트가이드’를 발행한다. 1850년 이후 출생한 한국 근현대 미술계 인사 4909명을 총정리한 ‘대한민국 미술인 인명록’을 비롯해 ‘한국현대 미술 해외진출 60년’ ‘외국미술 국내전시 60년’ ‘한국미술단체 자료집’ 등을 발간했다. 2008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열었다. 1999년에는 한국지식인 선정, 2008년 예술문화상 공로상, 2010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아카아브협회를 창립, 회장직을 맡고 있다.